

# 차 문화 중흥시킨 초의 선사의 의문을 풀다

화봉궐리리, 명선 초의전(茗禪 草衣展) 통해 초의 선사 조명

차(茶)는 1000년 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셔온 대표적인 음료로서, 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커피나 다른 음료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서 현대인들에게 차는 점차 잊혀져가는 존재가 됐다. 차를 마실 때의 까다로운 격식과 예는 바쁜 현대인들이 실천하기에는 어려운 문화로 인식됐다.

《동의보감》에는 차를 일컫어 머리와 눈을 맑게 하는 약초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웰빙’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가들이 차에 대한 효능을 속속들이 밝혀내자, 차가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에게 차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자연스레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가고 있다. 다성(茶聖)이라 불린 초의 선사는 《동다송(東茶頌)》, 일지암(一枝庵), 추사 김정희(1786~1856)와 도반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 존재가 일반인들에게 자세히 드러나지 못했다.

화봉궐리리는 이런 초의 선사에 대한 의문 해소와 존재를 알리기 위해 ‘명선 초의전(茗禪 草衣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초의의 유묵과 저술, 소장 도서, 그와 교류했던 인물들의 간찰 등이 전시의 주를 이루며, 대부분 자본 목서가 전시품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초의 선사가 유독공의 아들 유불학에게 보내 준 그림. 파공석조도(坡公石鑄圖).

초의 선사가 조선 후기 민멸 위기에 있던 차 문화를 중흥한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초의 선사는 선 수행과 차 문화를 일치시켜 다도를 중흥한 다성으로 추앙받으며, 추사 등 문인 학자와 많은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조선 후기 문화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실로 초의 선사의 공적들은 박영보의 《남다병서(南茶并序)》, 신위의 《남다시병서(南茶詩并序)》, 김명희의 《다시(茶詩)》, 황상의 《결명시(乞茗詩)》 및 추사의 수많은 절명 편지에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의 선사

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초의 선사에 대한 자료와 학계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던 탓이기도 하지만 그나마 남아 있던 자료도 여러 곳에 분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자료들을 한데 모아 초의 선사의 일대기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일지암서책목록》에 수록된 초의 소장 도서 중 서명이 같은 도서를 전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수행과 학문, 시학의 토대가 되는 도서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전시는 서울 관훈동 화봉궐리에서 4월 3일까지 열린다. (02)737-0057, 1159 이은정 기자

# 인드라망으로 엮힌 시 문학과 현대미술

가나아트 ‘시화일률(詩畫一律)’ 전 개최



“내려갈 때 / 보았네 / 올라갈 때 / 보지 못한 / 그 꽃”

고은 시인의 작품 ‘그 꽃’이 캔트지 위에서 한 떨기 꽃으로 재탄생 됐다. 꽃잎이 금방이라도 떨어지고, 나비가 날아다닐 것 같은 이 작품(사진)은 고영훈 화백의 ‘그 꽃’이란 작품이다.

김지혜 화백의 ‘머리에 꽃달기’라는 작품은 흰 종이 위에 허공에 기대는 듯한 난초 잎을 그려내 나태주 시인의 ‘기쁨’을 형상화했다. 이 밖에도 홍지연은 빨갛고 터질듯한 동백꽃으로 김효중의 ‘얼음 불꽃’을 표현했다.

가나아트는 2011년 새해를 맞이해 문학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한 ‘시화일률(詩畫一律)’ 전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시전문 계간지 《시와시학》 창간 20주년과 현대시 박물관 개관 3주년을 기리며 문학평론가 김재홍, 미술평론가 윤범모에 의해 기획됐다. 전시에는 74명의 시인과 43명의 화가들이 참여해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을 선보였다.

시와 그림은 전통적으로 시정(詩情)과 화의(畫意)가 조응하는 예술세계를 표현하며, 심미적 세계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추구해 왔다. 전시장에는 시는 형상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형상 있는 시라는 뜻의 무형화 유형화(無形有有形)를 체현한 80여 점의 시와 미술작품이 1부와 2부로 나눠 구성돼 있다.

43명의 화가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를 한 편씩 선택해 작품으로 시를 형상화 했다. 시의 예술혼을 회화적으로 구현해 시대정신이나 인간사에 관한 성찰 또는 삶에 대한 기원을 표현하고 있다. 각각각색의 화가들은 극 사실에서 추상까지 다양한 작품경향을 망라했다. 일반적으로 화가들에 의한 시 작품의 조형화 작업은 흔치 않은 기회로 이번 전시는 미술 애호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전시에 선보여지는 40편의 시작품들이 정지용문학상, 영랑시문학상, 시와시학상 등 3대 문학상 수상작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과 《시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들의 대표작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은 더욱 의미미다.

시와 그림은 단순히 문자와 화면이 결합된 가

시적 차원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드라망처럼 서로 연계된 창조물로서 구현됐다. 전시는 시문학과 미술이라는 서로 다른 장르가 교류해 낳은 작품들을 통해 그림 속의 서사성, 문학 속의 회화성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전시는 부산 해운대구 가나아트 부산에서 2월 23일~3월 13일 열린다. (051)744-2020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6~2,2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기도하는 즐거움	보경	불교시대사
4	부처님께 다가가는 방법	목경찬	조계종출판사
5	선방일기	지허	불광출판사
6	정성 성이 부처입니다	우룡	호림
7	간널 강이 어디 있오라	대행	한미음
8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9	노자 도덕경, 그 선의 향기	김산	정우서적
10	행복, 마음으로 얻는기 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	운주사

※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http://www.buddhabook.co.kr)  
**순주사** 02)3672-7181~5

## 시간도시

### ■ 읽기의 역사

사람은 5-6세가 되면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읽기를 계속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기를 하면서도 그 행위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생각하지 않는다.

사무직 근로자들의 경우 먹기, 마시기, 멧 내기, 여행, 사교 혹은 레저와 스포츠보다는 읽기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 평일이면 매일 5-8시간을 소비하는데, 잠자는 데도 그 정도 시간을 사용한다. 컴퓨터나 인터넷 둘 다 모두 읽기 혁명이다. 읽기가 일어나 웹(web)보다 훨씬 많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읽기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음악이 영혼에 미치는 것과 같다. 스티븐 로저 피셔의 《읽기의 역사》는 읽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앞으로 읽기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책을 얼마나 읽을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 또한 책은 서양의 읽기 역사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한국·중국·일본·인도에서의 읽기의 발전도 다루고 있다. 이들 역사를 통해 읽기의 과거·현재·미래에 관한 세계를 알려주고 있다.

스티븐 로저 피셔 지음 | 신기식 옮김 | 지영사 | 1만8000원

### ■ 체인지

삶의 목표는 행복이다. 행복에는 육체적 안락과 마음의 평안에서 오는 행복이 있다. 둘 중 우위에 있으며 영향력이 큰 쪽은 아마도 마음의 평안일 것이다. 마음이 평온하고 즐거우면 사소한 육체적 불편과 고통쯤은 너끈히 참아낼 수 있다. 마음의 상태는 이처럼 인간에게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명상은 특정한 정신 상태를 구현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는데 요긴한 수단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전념해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정신 자체를 탐구하는데 관심을 쏟을 때이다.



샤피로 부부의 《체인지》는 2010년 노틸러스 북 어워드에서 ‘사회변화·평화해결’ 부문 금상으로 선정된 책이다. 샤피로 부부는 책을 통해 좀 더 행복한 삶과 평화로운 사회로 변화하기 위한 명상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자신들의 생각과 더불어 달라야 라마, 로버트 서먼, 람다스, 조지프 골드스타인 등을 비롯해 영화배우,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 인류학자, 심리치료 전문가, 노벨의학상 수상자 등 각계각층의 권위자들과 명상 수련가 100여 명이 들려주는 체험담을 짜임새 있게 엮었다.

에드 샤피로·렘 샤피로 지음 | 최소영 옮김 | 생각의나무 | 1만5000원

### ■ 고양이에게 내게 말을 걸었다

샤를 페로의 《장화 신은 고양이》,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나쓰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 로소이다》 등 고전에 속하는 작품들에서부터 고양이에 대한, 고양이가 주인공인 작품들이 무수히 많다.

《고양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역시 이런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책이다. 책은 배우인 남편과 소설가인 아내가 세내려간 수필로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고, 손자·손녀를 보기까지 그들 곁에 항상 있던 고양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들이 바라본 고양이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변덕에 쉽게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으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의 애정을 구걸하지도 않는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골목길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사는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루이와 플레데리크 두 사람은 동반자이자 가르침을 주는 선생으로서 고양이의 미덕을 적어 내려간다. 그들은 고양이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방법, 명상의 즐거움,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충실함까지. 고양이는 지혜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책은 오랜 시간 동안 고양이를 통해 배운 삶의 지혜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프레데리크 에브라르·루이 벨 지음 | 정기현 옮김 | 다룬세상 | 1만1000원

##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사찰경제 바꾼다!!!

부처님이 봉안된 법륜대 만년 등으로 활기...

### 전통 상감청자 법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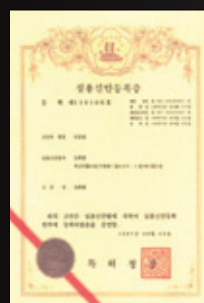
1. 수미단에 천불보탑 만년 등으로 시주자 명단을 새길 수 있습니다.
2. 전생 빛 해탈을 위한 황금 빛 금강경을 복장하는 법륜대입니다.
3. 가족의 소망을 적어넣고 직접 돌리는 신비한 법륜대입니다.

###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전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정중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함장



### 실용신안 특허의 기술

- 제품명 : 습금 상감청자 법륜대
- 높이 : 120cm
- 원통폭 : 45cm
- 밑바닥폭 : 30cm
- 무게 : 25kg